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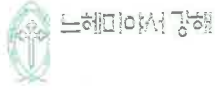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주 발행인 : 이 중 윤 주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ichurch.or.kr



지도자가 되는 길

(느헤미야 1장 1 - 11절)

지도자는 날 때부터 지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온시는 출생 시 주어지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나 알고 닦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날 지도자에 대한 이론은 많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주전 445 - 432년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봉직하던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을 통해 지도자론을 살펴봅시다.

1.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후 포로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외국 땅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비참한 처지에 빠진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1:11, 2:1). 이 직업이 우리에게 천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고대 사회에선 왕에게 독약을 넣는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안전을 위해 먼저 술 맛을 보기도 하고 관리하는 이 일은 신임자에게 맡긴 직분입니다. 이들은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의 술 따르는 자와 빵 굽는 자도 같은 위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같은 중직을 던지고 자기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하여 100여 년이 넘도록 노력한 자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도자로서 종교적, 도덕적 개혁을 성취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2. 느헤미야가 산 시대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다른 이들이 유대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보고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했습니다. 140년 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을 잡아갔던 사건을 잘 알고 있던 느헤미야였기에 그 소식은 그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고,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로 벨사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바벨론은 주전 539년 파사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되고,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도 하에 유대인의 1차 귀환(스1 - 6장) 당시 성전의 기초들이 놓이게 되었으나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15년간 지연이 됩니다.

주전 522년 다리우스가 메데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헬라를 정복하려 한 최초의 파사왕이었으나 마라톤 전장에서 주전 490년에 패전하고, 그 후 주전 520 - 515년 사이에 다리우스 통치 기간 중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주전 486년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고, 두 번째로 헬라를 침공하였지만 실패로 그치게 되는데 그는 주전 479년에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 주전 465 - 424년 아닥사스다 1세가 파사 왕위에 오르고,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통치 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지도자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친구의 필요를 보고 슬퍼했고, 성을 수축하기 전 동족의 고통과 무너진 성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느헤미야서는 역사 이해를 돕기보다는 진정한 지도자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기 보다는 무엇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과 참 지도자의 성품과 재능을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우선권은 무엇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백성들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1) 지도자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나

많은 지도자들이 대인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와 행동이 요청되는 시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2)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가 곧 자기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참 지도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남이 갖지 못한 은사를 자신이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자기 약점을 더 잘 압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거나 잊고 있을 때, 그는 죄에 빠지거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이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수축에 돕는 자가 되게 해 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잠21:1).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3) 지구력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유대에서 온 이들의 보고를 듣고 곧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귀항을 청원한 것은 같은 해 니산월(2:1)입니다. 기슬르월이 11 - 12월경이라면 니산월은 3 - 4월경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4.5개월 동안 하나님께 지속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있어야 할 지구력지만 사람들과 오래 참고 기다리기 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지도력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친구의 필요를 보고 슬퍼했고, 성을 수축하기 전 동족의 고통과 무너진 성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 ①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파송
- ② 교회학교 학생 1만 명 달성
- ③ 빈약한 자구제를 위한 사랑의 집 건립

이종운 담임목사는 신년 초 1월2일 순례자 1면 목회자의 신년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비전 3가지를 이루도록 기도한바 있다.

서울교회는 지난 3월3일 정기 당회를 통해 이 큰 비전을 앞으로 교회가 할 중요사업으로 받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많은 교회 중의 한교회로서의 서울교회가 아닌 하나님

이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사장 교회로 설립된 우리교회를 통해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이 파송되어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학교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받아 이 시대의 일꾼되게 하고 사랑의 집을 열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적극 구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서도록 기도한다.

‘세계선교대학’ 개설

4월14일(목)부터(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30분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따라 서울교회에 주신 향후 5년 내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계선교대학’을 개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내에 선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교위원을 비롯한 선교관련 부서의 청지기들을 교육하며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총회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한다. 수강 대상은 선교위원, 장·단기 선교사 헌신자, 남선교회/여전도회 임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장소는 602호이며, 입학신청은 사무국에서 하면 된다.

일정	과목	강사
4/14	개강예배/세계선교 오리엔테이션	이종운 목사/박충성 목사(총회세계선교부간사)
4/21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종운 목사
4/28	선교학 개론	김영동 교수(장신대)
5/12	총회 선교정책과 현황	신방현 목사(총회세계선교부총무)
5/19	선교하는 하나님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상임총무)
5/26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김중성 선교사(선교학박사, 도미니카 선교사)
6/2	세계선교 역사	남정우 목사(서울여대교회, 전 러시아 선교사)
6/9	지역사회와 세계선교	곽재웅 목사(선교학박사, 전 볼리비아 러시아 선교사)
6/16	선교의 문화적 관점	문상철 원장(세계선교연구원장)
6/23	선교행정과 후원/수료예배	이종운 목사/공훈 목사(총회세계선교부간사)

제6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5월 5일(목)오전 9시 밀알학교 실내체육관

열린교회, 화목한 가정, 섬기는 우리를 표어로 열리는 제6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준비위원회 조직이 발표되었다.

- 대회장: 이종운 목사
- 지도: 오정식 목사
- 지도위원: 당회원 전원
- 준비위원장: 김계재 장로
- 청팀(1-7교구)장: 임훈규 장로
- 백팀(8-14교구)장: 노분환 장로

캄보디아에 선교사 파송한다

11월 27일(주) 이재울 목사와 박병진 상담사 파송

우리교회는 복음의 불모지이며 또 다른 동족상잔의 현장인 캄보디아의 군 복음화를 위하여 이재울 목사(MSO 소속)와 박병진 상담사를 오는 11월27일(주)에 파송한다. 우리교회의 기도를 통해 캄보디아에도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한다.

이재울 선교사(1953년 생)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육군 대령 전역
- AMCF 선교협력위원회(MSO)임원-MSO 동남아 지역 탐장

박병진 상담사(1955년 생)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 졸업
-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기독교 상담학과 졸업(상담학 석사 M.A.)
- 미술실기 교사 자격, 상담사 2급, 기독교 상담사 2급

부서	부장	차장
기획부	이복규 장로	우지원집사, 오영철집사
진행부	박두호 장로	오광환집사, 최영열집사
심판부	임상현 장로	김금준집사, 김대홍집사
홍보부	전기섭 장로	정인주집사, 김시원집사
기록·시상부	홍성주 장로	황정임집사, 오승민집사
재정부	신용식 장로	탁경준집사, 양준경집사
동원부	박두영 장로	최광성집사, 윤숙희집사
시설관리부	최학민 장로	이승우집사, 조철기집사
봉사부	이관규 장로	이종민집사, 민중우집사, 이애순집사, 이영희집사
의료부	하인선 집사	정동호집사, 안인호집사
치유인내부	조정식 장로	정동익집사, 우상태집사, 유근종집사
음악부	박정선 장로	김성준집사, 최지순집사, 노재균, 황유석

유년부 부지도 임명

우리교회는 중국 연길 신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유학 중인 서흥위 전도사를 유년부 부지도로 임명하여 중국 복음화의 지도자로 키우고 유년부 부흥을 위해 힘쓰도록 하기로 하였다.

서흥위 전도사(1966년생)

- 연변대학교 역사학과, 동양사상사
- 2000. 7 ~ 2003. 6 : 연길교회 신학반, 소망부(지역장애) 담당, 여전도회 회장, 교역자담당 연길교회 전도사
-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재학 중

2005년 찬양대원 및 교회학교 교사 추가임명

교회는 찬양대원으로 혹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을 추가 임명한다.

오늘 추가 임명되는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아면 관현악단 지휘자>

손영호 집사-임범창 선생

<찬양대원>

· 임미누엘 찬양대

소프라노: 구진영 김경미 김지현 박종환 배유리 오경례 이지혜 홍영미
알토:곽정임 김효숙 양은희
테너: 김현호 배석훈 주현민 천정연 청정운베이스: 신두호 이영호

· 베를레임 찬양대

테너1: 강원배 옥문수 한선현 테너2: 김형배
바리톤: 정창빈 베이스: 안성현 이태승

· 예루살렘 찬양대: 피아노: 박선희

· 아면관현악단: 이경진(비순) 박성수(첼로)

· 시온찬양대: 이순재(오르가니스트) 윤은숙(소프라노) 정승용(테너) 강수남(베이스) 김원웅(베이스)

<교회학교>

· 초등부: 강신태, 구귀순 · 중등부: 최입수 · 신혼가정부: 김경애
· 장년2부: 유종덕 · 사랑부:곽정임(지휘) · 에바다부: 김혜중

<교회학교 부강 변경>

· 신앙강좌2부 부강: 김은태 집사 → 우지원 집사

· 장년4부 부강: 이영자 권사 → 정효자 권사

<전도학교 간사 임명>

· 김은태 집사

은혜 충만한 춘계일제심방

오정식 목사(교구위원회 지도, 5,6교구 담임)

일제심방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제심방은 1)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 2)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3) 신앙성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심방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은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심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제목을 교역자에게 제출하고, 가정을 잘 정리하여 심방 받을 분위기를 만듭니다.

실제심방 시에는 예배상과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심방 받는 가정의 식구들을 목사님과 마주 앉습니다. 또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전화 코드는 미리 뚫고, 핸드폰의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음식준비로 인해-치를 풀인다가나 식사 준비 등-예배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심방하는 심방대원들은 심방 받는 가정에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시고 예배와 상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철야기도회에 불을 붙이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승영호집사(1교구)

지난 해 이규정 목사님의 권유로 우리부부는 금요철야 찬양시간에 악기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아노와 함께 트럼펫과 플루트,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악기로 둘이서 연주를 하게 되었지만, 목소리만이 아닌 악기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하지만 회중의 찬양을 돕는 작은 역할 주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찬양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요기도회 주력부대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각 부서와 남여 선교회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사람이 보기에든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말씀하시던 어느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게다가 최근 헌당을 위하여 기도의 불을 붙이신 스테반 회원들과 권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철야기도회의 찬양과 기도가 날

로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며 기도회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시편 42편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기분에 상관없이 온전히 영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금요 철야기도회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모두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바쁜 시더라도 금요일저녁 9시에 시작하는 철야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뜨거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만민에게 전도 - 수요일간전도대

별처럼 빛나는 수요일간 전도대!

안성훈 집사(수요일간전도팀장)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한 가운데 정해준 수요일은 우리에게 바쁘고 마음이 분주한 날입니다. 어떤 이는 사업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각기 흩어져 있다가 수요일예배를 드린 후 야간전도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1층에서 간단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전도대원들은 전도를 위한 준비물을 챙기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로 향합니다.

준비물로는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전기도구, 상담을 위한 탁자 및 의자, 전도대상자의 간식(컵라면, 녹차, 커피) 유인물(주보, 순례자, 테이프, 4영리)을 준비하고 추운날씨로 인한 철막, 석유난로, 안내표시판 등 준비사항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 전도대에 더 많은 수가 참여한다면 전도가 훨씬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지상 과제임을 생각하고 우리 수요일전도팀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학원을 다녀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컵라면이 끓여 먹이며 4영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많은 학생들로부터 교회에 나오겠다는 응답을 들을 때 굉장한 힘이 납니다. 비록 그들의 대답이 확실하지 않으나 해도 복음의 씨가 그들 마음에 뿌려진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을 옴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수요일간 전도팀은 오늘도 전도를 위한 계획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인 모두 여럿이 부서를 포함하여 어느 부서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전도에 참여하여 전도 대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님을 천국으로 환송하고

백영의 권사(11교구)

지난 부활절 정오에 사랑하는 남편 이임희 집사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결혼 후에야 저의 천정과 같이 시어머님 천정도 3대째 초대 교인의 가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엄한 유교 가정으로 출가해 신앙생활은 물론 자녀들도 외가에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셔서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 주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외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외가 식구들이 계셨던 것이 깊은 믿음의 뿌리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옥남매의 가정에 손자 손녀를 열두 명씩이나 주셨고 믿음의 가정으로 장손은 신학 공부를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바치게 하시어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아반에 다니던 딸들(명아 명신 집사)의 전도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아빠만 지옥가면 어떻게 해." "내가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자지." "안 가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데." "그러면 너희들과 함께 나도 천국 가자지." 어린 딸들의 확고한 믿음과 사랑의 전도가 아빠의 마음에 심어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곧 학습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켜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못했지만 주례는 목사님께 반기로 허락해 주어 교회식으로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편은 세례 받은 후부터는 어느새 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깊은 신앙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공장신속 낙성식 때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부터 드리는 것을 받아주어 공장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사는 안 된다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후 많은 사업체를 주님께 의지하는 일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상과 기도하는 변화가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사년의 투병생활 중에도 휠체어를 의지하고 주일만 기다리던 모습은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없이 눈감고 계시다가도 찬송소리에 눈물까지 흘렸던 그 믿음에 새삼 감사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목에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도 소망 중에 남편과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조남혜 선교사 선교보고

모슬렘의 전도를 위하여...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방글라데시에서 인사드립니다.

Soja Pot Bangladesh-쇼자 풋(지름길) 방글라데시-NGO-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자 풋은 모슬렘을 상대로 주님의 사랑을 총체적으로 전하는 NGO로 모슬렘 개종자들을 위한 기반을 닦게 됩니다. 쇼자 풋의 설립 목표는 ①가난한 모슬렘 계층을 위한 기초교육과 영양식을 제공하고 ②모슬렘 개종자나 추구자를 위한 직업창업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③중산층 이상에 양질의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유아교육을 제공하여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④모슬렘 선교에 준비하려는 이들을 모집하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활동은 도시 빈민학교와 탁아소 도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직업창업 훈련과 이를 위한 소규모 대여 사업, 모슬렘 선교 훈련, 에벤에셀 국제학교(한국인과 기타 외국인 중산층 이상의 땀과 인자녀 대상)설립 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선교사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현재 Soja Pot Bangladesh-쇼자 풋(지름길) 방글라데시-NGO-의 활동상황은 다카 동부지역 도시 빈민가에 2개의 빈민학교 설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모슬렘 개종자를 위한 1차 직업선교 훈련을 제공하고 다타 한인교회에 30 여명의 한국인, 스리랑카인, 터키 학생을 위한 에벤에셀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브라



만 바리아 지역을 1차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일을 이루기 위해 매주 두 번씩 준비모임과 기도 모이고 있으며 브라만 바리아 지역(완전한 모슬렘 지역)에 작은 유치원 겸 주일 학교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0%인 이 땅의 회교를 위해 일하게 해주신 주님과 동역으로 믿어주시는 서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방해도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롭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와 목사님 모든 지체들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다카에서 조남혜 선교사

다락방 분리 및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추가 임명

교회는 2교구 청담동 지역의 전입 가정 증가로 2-17 다락방을 증설하고 7교구에도 7-11다락방을 증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락방장 및 부다락방장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임명하였다.

다락방명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2-3(남)	김영호 집사	안창휘 집사
2-4(여)		서대식 집사
2-5(남)		유관모 집사
2-14(여)	김선영 집사	신금전 집사
2-17(여)		권영월 집사(증설다락방)
1-18(여)		권성자 집사
7-11(여)	박정임 집사	신은숙 집사(증설다락방)

3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3월중 등록한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선용 경규정 경규혁 경기현 고은재 금상섭 김갑중 김경미 김경호 김동인 김민경 김민애 김보경 김봉준 김소희 김영률 김영순 김영희 김옥수 김은유 김우진 김원경 김윤희 김은비 김인제 김정숙 김정은 김태성 김태희 김택승 김형렬 김혜경 남가민 남병수 남희주 박경진 박기근 박기복 박성현 박옥 박재홍 박춘자 박혜리 배상미 서홍위 손경하 손경화 손혜규 송민섭 송윤석 송주현 송준달 송지섭 신호성 여승규 오병훈 오승영 오은숙 오형택 유정림 유호경 이명진 이서미 이상희 이상희 이수현 이영순 이예성 이옥희 이원희 이운희 이정애 이정철 임무근 임병창 임유환 임재식 임진규 임혜원 전가원 전경아 전리사 전수빈 정주희 정창숙 정청원 정후자 정희진 조경영 조관재 조기분 조상재 조현지 주연정 진현미 진혜원 최영태 최은기 최환혁 홍수연 황경미 황영수 황혜숙 이상 103명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4.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니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세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송암(松岩) 장학금 회사

이임희 집사가 2005년 3월27일 부활주일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자 유족들(이명근 장로, 이성근 집사, 이명숙 집사, 이명아 집사, 이명신 집사, 이명주 집사) 이 손자녀와 함께 복음 확장에 헌신할 유망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2억4천만 원을 교회에 회사하기로 하였다.

이는 6자녀의 가족수 24명에 맞추어 어머니 백영희 권사의 제안으로 지난 30일(수) 담임목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임희 집사의 호 송암을 따서 송암(松岩) 장학금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교회는 이 기금으로 교회내외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찾아 기독교 지도자 육성에 사용하게 된다.

수요강단 시편 말씀으로 4월 첫 수요예배 시부터

수요강단에서 선포되던 소선지서가 지난 3월로 끝남에 따라 4월 첫 수요일 부터 시편 말씀이 선포된다. 수요일 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책망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를 체험하기 바란다.

스데반회 수련회

4월 4일(월)~5일(화) 평택진위고등학교에서 스데반회 수련회가 4월 4일(월) 밤부터 5일(화) 까지 평택진위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제5기 동아시아 단기선교 지원자 모집 선교기간: 2005년 8월1일(월)~9일(화)

제5기 단기 선교팀으로 봉사할 성도들을 모집한다. 단기선교팀 인원은 30명 이내이며 자비량으로 봉사하게 된다. 4월2일~4월17일 까지며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치된 신청서 작성제출)

등정

- 이영조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국립예술영재 교육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선임
- 수상: 이주희 학생(중등부) 쇼팽주니어콩쿨 1위
- 연주회: 박승혁 선생(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 바르코 연주회 참가 4월3일 7:30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 이사: 유흥식집사, 계오복 집사 (8교구) 용산구 효창동 모건 빌라
- 개업: 이철주 심명옥 성도(10교구) 젠트렐 양복점 T.452-6638 김진희 성도(10교구) Bin.com(주) 광고회사 T.403-0838
- 주간식당봉사: 바울남선교회(4월3일) 엘리야남선교회(4월10일)
- 금주의 식사: 백영희 권사와 가족 일동(장래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